

기고

## 대한 사람, 대한으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전 주 브라질 대사

이스라엘은 1948년 아랍 국가들의 위협 속에서 국가 건설을 선언한 이후 국가 존망이 걸린 두 번의 결정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1967년 6월의 6일 전쟁과 73년 10월 전쟁이다. 이 두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주축으로 하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의 아랍 연합군의 침략을 격퇴했다.

이집트는 더 이상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고, 결국 1977년 이집트·이스라엘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지위를 확고히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시 해외에서 많은 유대계 젊은이들이 참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달려간 것은 잘 알려진 감동적 이야기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면서도 고국으로 돌아와 병역의무를 다하는 해외동포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해외 영주권자의 자진 입대 희망자를 위한 '영주권자 입영' 제도가 2004년 실시된 이후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자진 입대한 젊은이가 1000명을 넘었다.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가슴 뜨듯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도 극히 일부 이긴 하나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쓰는 젊은이들이 있는 요즈음 병역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군 복무를 지원하는 것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원 입대하고자 귀국한 재외동포 젊은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군 생활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부지심, 정체성을 얻기 위하여 입대한다고 말한다. 많은 경우 부모님들의 권유가 있다라고 한다. 실제로 훈련 중인 국외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입대동기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촌 170여 국에 퍼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각자의 거주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애환과 그들의 성공담은 늘 우리 마음

을 끌고하게 한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젊은이들은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늘고 있다.

사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고, 넘어가 할 숱한 고비가 눈앞에 펼쳐지는 시기에 고국에서 병역을 이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원 입대한 것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얻은 결단이요, 용기의 산물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에서 태어나 교육 받은 관계로 우리말도 서툴고, 거기다 문화 적 이질감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 생활을 지원하는 그들이 정 말이지 대견스럽다. 물론 군복무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고국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젊은이들 대부분 다시 거주국으로 돌아가 학업이나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애국심이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체득하는 고귀한 가치라고 한다. 최근 한류 불을 타고 젊은 재외동포들의 고국체험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군 복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학을 맞아 자료로 보아야 한다.

병영체험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재외동포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조국을 알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 원한다는 표시이다.

이제 재외동포사회도 변화의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미 1세대들이 점차 현역에서 은퇴하고, 2~3세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고 있다. 현지에서 교육받고 현지문화에 익숙한 그들은 창조적인 변신을 통하여 거주국의 주류사회로 진출하며, 새로운 모습의 동포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70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을 국가 자산으로 삼아야 할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모국에 대하여 깊은 뿌리의식을 지니고,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고자 노력한다는 사실이 여간 반갑지 않다.

국내이던, 해외이던 어디에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어디에서 살던 우리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이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인 것이다.

이제 재외동포를 그자 바다 멀리 떨어져 사는 동족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대한 사람' 대학으로 길이 보존하세'를 힘껏 부르는 그들을 민족의 영광을 함께 만들어 나갈 동반자로 보아야 한다.

## 법조칼럼

## 소액법정에 대한 단상

양동학  
광주지방법원 21단독 판사

25년이 넘는 비교적 긴 세월동안 재야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법원에 들어와 판사로 재직한지 약 10개월이 지났다.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법조일원화 시책의 일환으로 경력전담판사로 임명되어 민사 소액 사건 가운데 주로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되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처음 놀란 것이 엄청난 업무량이다.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적 유대관계를 놓넓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여, 자주 모임에 참석하고 여러 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 보니 변호사는 실제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다가 판사로 재직하게 되어 직무에 충실히하기 위해 이러한 모임이나 단체에서 모두 탈퇴하였다. 물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러한 모임에서 탈퇴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가사 참석이 허용된다면 할지라도 시간적인 측면

에서 이러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는 외로움을 느끼고 겪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비로소 실감이 난다. 야간이나 휴일에 기록검토를 마치고 법원을 나가거나 보면 그때까지 대부분의 판사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재판기록을 검토하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무엇이고, 실제진실은 무엇이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관련 판례는 어떠한지, 자료를 찾고 기록과 씨름을 하다 보면 정해진 업무시간 내에는 마침 수 없어 부득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판사들과 같이 근무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뒤떨어지는 것도 느끼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나의 난은 인생 중 오늘들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객관적인 현실과 그동안의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이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중이다.

소액사건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사건을 말하는데, 2003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체 민사분야 사건 가운데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8.8%에 해당할 정도로 민사소송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도 민사사건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에서 경력법관을 임명한 이유는 변호

사로서 다양한 상담이나 사건 처리 및 사회 경험 그리고 법대 아래에서 직접 재판을 받은 경험까지 있으니 당사자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고 좀 더 세심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선발한 것일 텐데, 내가 과연 그러한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항상 걱정이 앞선다.

소액법정은 이 사회의 서민들의 삶과 생활 그리고 눈물이 그대로 드러난다. 흔히 처리하는 사건이 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청구, 임금 청구 등으로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이 사회의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사는 서민들의 애환을 그대로 목격하게 된다. 당사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제때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고울의 이를 부당할 수밖에 없어 당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때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낀다.

당사자들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장과 증거제출 방법을 몰라 법정에서 자주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흔하다. 당사자는 재판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재판장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원래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이 알고 제일 모르는 것이 법원이라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법원

은 단지 기록만을 보고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그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소액 사건의 경우 제대로 된 약정서나 계약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보다는 간이한 장부나 메모, 그리고 구두로 한 약속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재판에 응하고 판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당황스럽다.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려고 하나, 소송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만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

소액법정의 경우 당사자가 제대로 된 주장 입증을 못 하여 양보하게 패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따로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가능하면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법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최우선 시하게 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중이다. 당사자에게 정리된 사실관계와 법적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대부분 수긍하고 조정에 응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좀 더 인내하여 당사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고자 오늘도 각오를 새로이 해본다.

## 기고

## 한국사는 단일 국정교과서가 대안이다

고영우  
고구려대학 이사장

EBS 교육대토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방송한 것을 보았다. 토론자 4명 중 3명이 교수, 한 명은 교사였다. 토론 내용은 시종일관 교과서가 좌권향인지, 우편향 인지를 주장하며 끝까지 두 사람씩 나란 편 가르기 토론이었다. 자기 뜻만 전달하기 위한 주장을 앞세운, 당연히 결과는 얻지 못한 채 끝났다.

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국정교과서가 대안이다. 사실, 중·고등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한국사 교과서는 단 한 권일지도라도 학생들에게는 벅차다. 학생들은 한국사 외에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열 과목 이상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학생들이 이 학습해야 할 학습 부담을 제일 먼저 배려 해야 한다. 교과서를 편찬할 때 다양성, 자율성, 전문성을 중시해서 한국사 교과서를 출판사마다 민든다는 현실을 무시하고자 함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 단일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어야 했다. 그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한국사 교과서가 논란거리가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된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사 교과서 편찬도 역사교과들에게 맡겼으면 한다. 단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 역사교과들을 무시하지 말라. 아주 오래전,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난다.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 당시 중학교 입시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출제되어 어린애들이 입시지옥에 내몰렸다.

50~60대 부모님들은 다 기억이 날 것이다. 아마 요즘 고3들이 그 당시는 초6이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를 출제되어 어린애들이 입시지옥에 내몰렸다.

그리고 당시 교육부는 교과서에서만 출제하는 지시를 내렸고 그 방침은 학생들에게 대한 배려였다. 이렇게 교육의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 생활을 오래 했던 내 경험으로는,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단 한 종류만 편찬하는 게 좋을 듯하다. 국정교과서가 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부모는 학생을 키우는 것이다. 세 번째 역사 교사들이 출제하는 시

재연구가 될 수 있다. 중·고학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역사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수준을 파악하고 있어서 한국사 교과서를 역사교사들이 편찬한다면, 시행착오로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얇을수록 좋다. 모든 학생이 수능에서 90점 이상 득점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서 쪽수가 적을수록 좋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이 나설 때다.

교사는 전문집단이다. 초등교사는 교육대학에서 4년간 학습한 후 임용고시 후 발령받고, 중등교사 역시 사범대학이나 교직과목을 이수한 4년 졸업생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교사가 된다. 교사들이 고등 교육기관에 대해서 활동할 수 없듯이 보통교육기관이 초·중등 교육에 대해 대학 교수들이 논한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으로 흐를 뿐이다.

그래서 중등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현장

## 社說

##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광주 학력 추락

교육부가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국어·영어·수학) 결과, 광주지역 학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광주지역 고교 2년생들의 학력성취수준을 나타내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 89.7%, 수학 90.1%, 영어 90.4%였다.

이를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국어는 3위, 영어는 6위, 수학은 7위로 지난해 국어 2위, 영어 4위, 수학 5위보다 각각 순위가 떨어졌다. 지난 2011년 평가에서는 광주가 전 과목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점에 비추어 학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높았던 것이다.

여기다 고2 기초 미달 비율이 3.7%로 광역 시 중 최고라는 것도 충격적이다. 다만, 학력이 3년 연속 상한된 고2 학교 비율이 53개교 중 21개가 해당돼 39.6%로, 대전(42.6%) 다음으로 많은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지역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최우선 시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며 때문이다. 현재 정치·여건상 지역 출신 인재 등용이 극히 미진하고, 경제잠재력 또한 최하위 수준인 처지에서 학력마저 뒤진다면 희망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면밀한 대책을 세워 학력신장을 꾀해야 한다. 인성교육도 좋지만, 학부모와 지역의 최우선적인 요구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길러달라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심기일전에 광주가 선진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 안철수 신당 호남에만 의존은 안된다

부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28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함에 따라 호남 정치권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호남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정치 지망생들이 신당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 37.9%, 안철수 신당 27.3%, 민주당 12.1%로 신당 지지도가 제1야당의 두 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 지지도(50.4%)는 압도적이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 이유는 무엇보다 안 의원이 호남의 정치적 희망에 가장 극복해 있다는데 있다. 이는 민주당이 이끌어온 혁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중심으로 빼내기식 '급조정당'이라면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고, 막상 민주당과 신당의 '공동참여'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신당이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숨어온 제3당의 운명을 견지해 새겨야 할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으로 호남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또 다른 지역당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과 영남, 충청권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놓여 호남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안 의원이 새 정치, 또는 신당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여전히 안 의원은 청년 창당 시기나 참여인사, 애원연대 등에 대해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신당이 각자 국민적 평가를 받아본 뒤 열린 자세로 애원 재편을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 인사들은 중심으로 빼내기식 '급조정당'이라면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고, 막상 민주당과 신당의 '공동참여'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신당이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숨어온 제3당의 운명을 견지해 새겨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5000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아마도 가